

# 동반자살 예고했지만...관심병사 관리 '구멍'

## 관심병사 2명 동반 자살

육군 28사단 소속 보호관심병사 2명이 휴가 중 동반 자살해 군 당국의 관심병사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28사단 예하부대의 같은 생활관에서 복무했던 A(23)상병과 B(21)상병은 11일 밤 10시25분께 서울시 동작구 모 아파트에 사는 A상병 누나의 집 베란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3일과 6일 각각 휴가를 나왔으며 복귀 예정일은 11일과 14일이었다. A급 관심병사인 B상병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A상병도 B급 관심병사였다.

이들은 입대 후 군 복무에 어려움을 겪어 각각 7~8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

## 후임병에게 "휴가 중 자살" 분대장이 간부에 보고안해

### 입대 후 7~8회 정신과 진료 5월 인성검사 자살예측 판정 자살 장병 올해만 46명

로 확인됐다.

A상병은 지난 5월 2일 인성검사 때 자살 예측 판정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으며 B상병은 지난해 자살 충동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특히 광주 모 고교 출신인 B상병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과 함께 조기 전역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부대에 남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모의 반대가 있더라도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에 대해서는 강제 전역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B상병은 후임병에게 "8월 휴가 중 A상병과 동반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해 후임병이 분대장에게 보고했으나 이런 사실이 간부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대 내에서 자살 가능성이 큰 병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군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자살 장병은 총 820명에 달한다.

올 들어서만 46명의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평균 자살자는 2004~2008년 72.6명이었으나 2009~2013년에는 82.2명으로 늘었다. 관심병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내 자살사건이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셈이다.

군 당국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식별한 관심병사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병사들은 징병검사와 신병교육대(입대 2~3주 후), 이병 및 일병(반기 1회), 상병 및 병장(연 1회) 시절에 인성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관심병사 여부가 식별된다. 관심병사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병사를 대상으로는 비전캠프나 그린캠프와 같은 치유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육군 28사단은 이날 시신 부검결과와 관련, "폭행이나 억압 흔적은 없고 시반과 목의 끈 흔적으로 미루 스스로 목숨을 끊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한국인 우울증, 속으로 삭이다 병 키운다"

### 자살 생각 비율 미국의 두배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우울한 감정을 억누르고 속으로 삭이다 병을 키우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팀은 하버드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모리조 파버(Maurizio Fava) 교수팀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우울증 환자 5300여명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한국 환자의 비율이 미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14개 대학병원의 환자 1592명, 미국에서 14개 주요 대학병원과 41개의 클리닉의 환자 3744명을 대

상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에 따르면 환자들의 우울증 척도(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는 우리나라가 14.58점으로 미국 환자의 19.95점에 비해 30%가량 낮았다. 하지만 삶의 질 척도(Q-LES-Q-SF)에서 우울증의 심각도는 한국이 39.15점으로 미국의 37.33점보다 약간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우리나라 환자가 우울한 기분을 말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정도가 미국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즉 내면적 우울증은 심각하지만, 겉으로는 이런 우울증이 잘 표출되지 않는 셈이다. 특히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6.9%로 미국인(3.8%)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열심현상 측정** 12일 오후 광주시 기후변화대응센터 직원이 남구 양림동 대로변에서 열심현상을 측정하고 있다. 주·야간 2차례에 걸쳐 15개 구역 150개 지점에서 실시한 이번 측정은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일수 증가 요인 등을 분석하고, 대책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것이다.

## 여수해경 경비정서 구타사고...조사 착수

여수해경 소속 소형 경비정에서도 선·후임간 구타사고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여수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해경 소속 P103 형사기동정 취사실에서 근무하는 박모(21) 일경이 지난달 말 후임 장모(28) 일경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박 일경이 취사실에서 지난 6월 해당 환경에 신입 배치된 장 일경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의 가슴을 두 차례 때렸다는 것이다.

장 일경은 최근 휴가를 나갔다가 가족에게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장 일경의 가족은 여수해경을 찾아가 합정 내 폭력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부대원 관리 책임을 물어 P103 형사기동정장을 전보조치했다. 또 박 일경과 장 일경에 대해서도 근무지를 각각 변경 조치했다.

해경은 박 일경과 장 일경 간 구타가 수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한 관계자는 "10여명이 생활하는 소형 경비정에서 선임이 후임자에게 환경내 생활수칙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장 일경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목포해경 123정 부책임자 "퇴선방송 없었다" 확인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의 부책임자가 승객 전체를 위한 퇴선 방송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123정 부장(부정장) 김모 경사는 12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초기에는 못했지만 인명구조 과정에서 (배에 서) 빨리 나오라는 방송은 몇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정장이 지난 4월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5분가량 수차례 "승객 전원 퇴선하라"는 방송을 했다고 밝힌 정장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객 전원을 향한 퇴선 방송은 없었다고 확인하면서 "정확히 퇴선 명령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타실에서 승무원 등을 구조하고 유리창을 깨고 객실 내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빨리 나오라고 123정 조타실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방송했다"고 말했다.

평소 익숙자 구조 외 다수 인명구조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그나마 구조 매뉴얼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김 경사는 진술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123정의 항해팀장 박모 경사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 외에 좌초한 선박에 진입해 구조하는 훈련을 받은 적 없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 검찰, 숨진 유병인 '공소권 없음'...장남 대균씨 구속

검찰이 지난 6월 초 순천의 한 매식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병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대해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4월 20일 이후 114일 만이다. 검찰은 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검부(팀장 이현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역수는 횡령 및 배임

1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총 1450억원에 달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인 정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됐으며 월 1500만원의 고료로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씨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고 검찰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 하루 70명 심장정지 사망...자동제세동기 설치 절반도 안돼

한국에서 하루 평균 70여 명이 심장정지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있지만,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AED 의무설치대상인 120개 장소를 조사한 결과, 설치율이 42.5%(51개)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AED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하는 기

를 말한다. 병원 밖에서 발생한 환자의 심장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고 전기충격이 필요할 때 음성으로 사용방법을 안내해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ED 설치의무 장소별로 선박(10.0%)의 설치율이 가장 낮았고 철도 객차(20.0%), 수도권외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28.4%), 철도 역사(42.9%), 여객 터미널(80.0%) 등의 순으로 설치됐다.

## 노래방 유인 뒤 외상 손님에 금품 빼앗은 '빼끼' 경찰서행

○...노래방으로 손님을 유인한 뒤 술값을 외상하면 훗날이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이른바 '빼끼'들이 경찰서행.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3)씨와 유모(19)군은 지난 11일 새벽 4시1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유흥가에서 노래방 손님 이모(37)씨를 폭행하

고 현금 5만원과 130여만원 상당의 반지와 목걸이를 빼앗은 혐의.

○...이들은 "5만원이면 술을 마실 수 있다"고 꼬드겨 이씨를 노래방으로 유인한 뒤 이씨가 5만원 이상 술값이 나와 돈이 없어 외상을 하고 노래방을 나오자 뒤쫓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고 경찰은 설명.

### 15P - 13층

- 실坪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5백만원

### 29P - 사무실 적합

- 실坪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 수기동 오피스빌 "매매"

###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 53P -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 실坪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1천만원에 월10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천만원

##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